

한국과 일본 아버지의 성역할태도와 양육참여행동과의 비교연구

A Cross-Cultural Study of Father's gender role attitudes and Father's
Involvement Behaviors in Korea and Japan

일본 시라유리여자 대학원 발달 심리학전공

박사과정 姜 蘭 惠

일본 오차노미즈여자 대학원 심리학전공

박사과정 相良順子

Dept. of Human Development, Shirayuri Univ.

Doctoral Course : Kang, Ran Hye

Dept. of Psychology, Ochanomizu Univ.

Doctoral Course : Sagara, Junko

〈목 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및 해석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differences between father's involvement behavior perceived by their children which consisted of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behavior and Father's gender role attitude in Korea and Japan.

The research sample consists of 240, 4-5th grade Korean children and their fathers, and 215, 5-6th grade Japanese children and their fathers in Seoul and Tokyo respectively.

Results showed that (1) Korean fathers exhibited more affectionate child rearing behavior than Japanese fathers. On the other hand, Japanese father exhibited more fathers's involvement behavior than Korean fathers. (2) Korean fathers tended to show more traditional gender role attitude than Japanese fathers do. (3) In the both countries, father's affectionate child rearing behavior are greatly affected by non-traditional gender role attitude, whereas father's involvement are affected by length of time that fathers devote to child care.

I. 서론

1. 문제의 제기

최근 어머니=양육자라는 종래의 연구와는 달리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참여함으로써 아동의 제영역의 발달은 물론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자신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면 아동양육에 참여하고있는 아버지는 아동과의 친밀도가 높고(Russell, 1982), 아버지로서의 유능감이 높으며(Baruch & Barnett, 1986), 아동양육에 긍정적인 태도와 아버지로서의 만족도가 높다(Easterbrooks & Goldberg, 1984; 柏木·若松, 1994; 新谷·村松·牧野, 1993). 또한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는 어머니의 자녀양육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Crockenberg, 1988; 牧野, 1982), 게다가 아버지의 직접적인 자녀양육참여는 어머니와는 다른 측면에서의 정서, 사회성의 발달을 촉진한다(Dunn, 1993)라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이와같이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아버지가 양육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 또한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려는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에 관한 종래 연구는 영유아에 초점을 두어 아버지의 참여 시간이나 자녀를 돌보미 어머니와는 어떻게 다른지에 관한 기술적 연구(兒玉 水原, 1992; 三好, 1996; Easterbrooks & Goldberg, 1984)이고 아버지의 물리적 접촉의 시간과 가사에 협력하므로써 간접적인 아버지의 참여에 관한 연구(福丸, 1997; 이미숙, 1995)가 대부분이다. Park(1995)은 아동에 대해서 아버지의 물리적인 접촉의 양 보다 관계의 질인 심리적인 접촉-아동과 접할 때 어떻게 행동하고있는-가 중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아동의 성장하는데 있어서 일상적인 참여 보다는 부자관계의 애정관계가 중요하며 아동의 사회화, 성역할, 지적발달에 아버지의 애정이나 관심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일치하고 있다(최경순, 1992; 강란혜, 1990; 姜蘭惠, 1997; 加藤, 中野, 土谷, 小野, 數井, 1996; MacKonald & Park, 1984; Park & Tinsley, 1987; Russell & Russell, 1987). 이

처럼 아버지의 애정적양육행동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대상으로한 양적인 측면과 함께 질적인 애정적면들을 다룬 연구는 미비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면 이러한 질·양의 양육참여를 촉진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초래하는 요인에 관해서 木田(1980)는 아버지의 노동시간을 들고있다. 실제로 아버지는 많은 시간을 사회활동에 소비하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관심이 자연히 감소하고 전반적으로 자녀양육은 어머니의 책임이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특히 일본 아버지는 「회사중심의 삶」이라고 불릴만큼 자녀양육보다 회사와 일에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가정교육에 관한 국제비교조사」(1995)에 의하면 0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을 가진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한국, 일본을 비롯한 6개국의 조사결과 주당 노동시간과 근무시간의 평균이 일본보다 한국이 길었지만 아버지가 아동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가장 짧은 것은 일본 이었다. 일본 총무청(1987)의 조사에서도 일본의 아버지는 일 보다 자녀양육이라는 가치관을 갖는 아버지는 불과 3% 이었다. 즉 아버지의 양육참여행동은 시간적 제약이라는 단순한 문제보다는 아버지 자신이 가사·자녀양육은 어머니의 일이라는 성역할 의식이 관계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柏木, 1994; 中野, 199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래의 연구에서 거의 다루지않은 아버지의 양육참여행동을 아동과의 상호작용에서의 친밀감을 표시하는 애정적 양육행동(질)과 물리적 신체적 상호관계에 대한 참여도(양)로 나누어 아버지의 배경변인과 아버지의 성역할 태도와의 관계를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한국과 일본은 가치관의 배경이 비슷하다. 유교의 영향을받았고 게다가 일본도 가부장 제도가 강했으나 전쟁후 아버지에 대한 상이 급격히 변화해서 「아버지없는 사회」라고 말할 정도로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존재는 대단히 희박하게 되었다. 한편 일본 총무청(1996)조사에 의하면 한국 아버지의 권위가 일본 아버지 보다 강하다고 서술하고 있다. 유교문화가 아직 남아있는 한국과 일본의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행동을 문화간 비교함으로써 한국과 일본의 부자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비교,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시발점적인 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 1) 한일 양국의 아버지의 질적·양적 양육참여행동에는 아버지의 관련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2) 아버지의 양육참여행동은 아버지의 성역할태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3) 아버지와 관련된 변인 및 성역할태도는 아버지의 질적·양적 양육참여 행동에 어떠한 상대적 영향력을 가지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아버지의 양육참여행동 및 관련변인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아동발달에 매우 중요하다고 많은 연구자들은 보고하고 있다(MackDonald & Parke, 1984; Radin, 1989). 아버지의 양육참여 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는 실질적으로 양적인 연구이고 양육참여행동의 정의와 측정방법이 다양해서 선행연구를 체계화해서 비교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면 많은 연구가 가사참여에서의 아버지에 관한 연구가 일반적이다. 아버지의 양육참여행동에 가사를 포함하지 않은 것과 가사를 포함하는 것, 또한 어머니의 단순한 보조자로 아동양육참여 등, 어떠한 변인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연구결과가 달라진다(Pleck, 1983; 牧野·中野·柏木, 1996). 자녀양육을 어느 정도 행하고 있는가라는 빈도를 측정한 小宮山(1992)는 유아를 가진 아버지 674명을 대상으로 자녀양육의 참여와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에 대한 어머니의 만족도에 관한 조사결과 '산책을 한다' '책을 읽어준다' 등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양육행동이 적으며 어머니는 아버지의 자녀양육행동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水原(1992)는 초등학교 2학년 아동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를 조사한 결과 아버지는 '스포츠를 한

다' 등의 신체적인 놀이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acDonald & Parke, 1986). 또한 최경순(1992)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참여도에 가사참여, 여가활동, 학습지도, 생활지도가 포함되고 있다. 이러한 역할수행에 대해 Ishii-Kuntz와 Masako(1994)는 미국 아버지와 일본 아버지들의 아버지로서의 역할 수행을 비교연구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미국 아버지들은 자녀양육의 역할을 가장 중요시한 반면에 일본 아버지들은 가정에서의 역할보다는 직장에서의 세계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그리고 미국 아버지들은 일본 아버지들보다 자녀와 함께 스포츠를 즐기거나 함께 저녁을 먹거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자녀의 숙제를 더 도와주었다.

역할수행에 대한 빈도와 달리 아동과의 접촉시간을 측정한 Russell와 Russell(1987)은 오스트리아의 어머니는 일주에 54.7시간을 아동과 함께 지내는 것에 비해 아버지는 34.6시간이었다. 일본의 유아를 가진 부모를 대상으로 아버지가 유아에게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의 실태를 조사한 綿引, 新谷, 三好(1996)은 평일에 아버지가 아동과의 접촉시간은 2시간 미만이 4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60%의 아버지가 유아와 함께 놀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 아버지가 실제로 아동과 접할 때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의 질의 측면에 관해서 검토하기 보다는 아버지의 물리적접촉의 시간과 가사에 협력함으로써 간접적인 아버지의 양육참여행동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Lamb(1986)은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보낸 시간의 양은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가에 비해서 덜 중요하다고 하였다. Macoby와 Martin(1983)도 부모의 정서적 참여(따뜻하고 친밀한 감정)는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아동간 상호작용의 질적인 면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아동과의 관계를 보다 깊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질적인 면(정서적인 원조 친밀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Park, 1995). 또한 최근 몇몇의 연구(Barnett & Baruch, 1987; Coverman & Shely, 1986; Levant et al., 1987)는 아버지의 가사의 참여와 아동양육행동과는 반드시 관

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행동을 측정하는데 가사의 참여는 다루지 않고 아버지가 아동과의 직접적인 접촉의 양적인 면과 함께 질적인 측면의 관계를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양육참여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Palkovitz(1984)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부모의 역할에 대한 아버지의 적응을 촉진시키는 의미있는 수단이라고 하였다. 이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양육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福丸, 1997; 허선자, 1992)이라고 할 수 있다. 위영희(1980)의 연구에서도 6세, 8세, 10세의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아버지의 역할과 아버지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조사한 결과 아버지의 전체적인 역할수행 정도는 아버지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木田·大谷(1992)은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버지의 직업 및 귀가시간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아동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보면 아버지들은 딸보다 아들에게 더 관심이 많고 더 많이 참여하며,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leck, 1983). 그러나 중학생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김미란(1985)의 연구에서는 아들보다 딸에게 더 높은 역할수행도를 나타냈다. Ishii-Kuntz(1994)가 미국의 아버지와 일본의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를 자녀의 성별에 따라 비교한 결과에서도 미국 아버지는 일본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두배를 아들과 보내고 있는 반면에 일본 아버지는 아들보다는 딸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加藤와 그의 동료들(1996)은 유아를 갖은 부모 882명을 대상으로 양육행동의 유연성(flexibility)을 양육행동의 질을 묻는 척도로 하고 평일과 휴일에 자녀와 함께 지내는 시간을 양육행동의 양으로 하여 양육행동의 양과 질과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아버지의 양과 질의 양육행동 모두 아버지의 관련요인(연령, 자녀수, 배우자의 취업유무 등)과 아동의 성별과는 관계가 없음을 제시하고 오히려 아버지의 성역할 의식이나 자녀관 등의 요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아동양육참여 행동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하여 설명되고 있으므로 아버지의 양육참여 행동에 관련된 변인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2. 성역할 태도와 아버지의 양육참여행동과의 관계

아버지의 양육참여행동에 미치는 요인은 크게 개인적·심리적요인과 가족적배경의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Parke, 1995). 개인적·심리적요인은 아버지의 성역할태도와 양육참여의 동기 등이 관계한다(Lamb, 1987). 많은 연구들은 아버지의 성역할관과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관해서 조사를 해 왔다(Barnett & Baruch, 1987; Crouter et al., 1987; Levant et al., 1987; Radin, 1982; Russell, 1982).

Russell(1982)은 Bem의 성역할 특성 척도를 사용하여 성역할 지향성과 양육활동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양성적인 아버지들은 남성적인 아버지들 보다 일상적인 양육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였다. 또한 전통적인 가정에 있어서는 성역할특성 득점과 아버지의 양육참여와는 관계가 없음을 발견하였다. 반면 허선자(1992)는 남성성은 아버지의 양육참여 행동을 설명하는데 중요한심리적 변인으로 남성성이 강한 아버지들은 남성성 정체가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양육활동이 여성의 일이라고 인식하더라도 자신의 역할을 자신있게 계획하고 지각할 수 있다고 한 Palkovitz(1984)의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柏木·若松(1994)는 성역할태도와 양육행동과의 관련을 조사한결과 가사·양육행동에 참여가 높은 아버지가 참여가 낮은 아버지보다 성역할분업에 비판적인 「혁신적·비전통적인 성역할」관을 「남성의 양육참여·가사참여」와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를 갖는 것을 제시했다. 이것은 성역할관이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관련된다고 지적할 수 있다. 아버지의 성역할관과 아버지의 참여도와의 관계를 본 土谷(1992)의 연구에서도 성별분업관이 비전통적태도를 가진 아버지일수록 양육참여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버지의 성역할관은 아동양육과 아버지의 가사참여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라는 결과가 McHale & Huston(1984)와 Barnett & Branch(1987)에 의해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성역할태도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남성성, 여성성을 그 기준으로하는 심리적 입장과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성별분업관이 전통적태도인가 비전통적태도인가를 의미하는 사회적 입장에 근거해서 조사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입장에 근거해 아버지의 성역할 태도를 측정하고 아버지의 질적·양적 양육참여행동과의 관계를 살펴 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의 경우 서울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 5학년 아동과 그 부모, 일본의 경우는 도쿄(東京)와 도쿄의 근교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과 그 부모가 조사대상이 되었다. 질문지는 부모용과 아동용을 작성하여 한국 총 320부, 일본 총 320부를 국민학교의 아동을 통해서 그 아버지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다시 아동을 통해서 회수하였다. 회수율은 한국이 80%이고 일본이 70%이었다. 그

중 아버지-아동이 완전히 일치한 데이터는 한국이 240쌍, 일본이 215쌍으로 총455쌍을 분석에 사용했다. 조사기간은 1997년 5월부터 6월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한국과 일본을 비교한 결과 <표 1>과 같다. 먼저 연령을 보면 한일공통으로 아버지의 연령은 40대가 가장 많다. 어머니의 취업형태를 보면 한국의 조사대상자는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25%, 전업주부가 75%이고 일본은 취업주부가 64%, 전업주부가 33%이다. 이러한 비율은 일본의 경우는 전일제가 아닌 거의 시간제로 일하는 비율이다.

2. 조사도구

1) 아버지의 성역할관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성역할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척도로 여성의 사회진출, 남성의 육아및 가사참여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된 「사회적 성역할관 척도」(相木·若松, 1994)와 남성성역할에 대한 탈지향과 전통적 지향성을 양극으로 하는 「탈남성역할 척도」(領木, 1994)에서 14항목을 선택, 수정하였다. Varimax회전방식을 이용한 결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한국		일본				한국		일본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아동의 성별	남아	124	51.7	106	48.8	연령	20-29	1	0.4	-	-
	여아	116	58.3	109	50.7		30-39	81	34.0	45	22.4
교육 수준	중졸미만	11	4.5	7	3.5		40-49	152	63.0	144	71.6
	고졸미만	58	24.1	66	32.8		50세이상	6	2.5	8	4.0
	전문대졸	29	12.0	18	9.0	모의 직업	유	60	25.0	140	64.5
대졸이상	141	58.8	105	52.2	무		180	75.0	74	33.0	
자녀수	1명	27	11.2	15	8.7	부의	회사원	107	44.5	114	56.7
	2명	173	72.1	125	57.3		전문직	15	6.2	9	4.5
	3명	33	13.8	64	31.2		자영업	78	32.5	35	17.4
	4명이상	6	2.5	6	2.8		판매업	31	12.9	38	18.9

주) 결손치는 삭제되었음

과 두 요인으로 나누어졌는데 제1요인을 「성별역할 분업의식」 제2요인을 「남성의 양육참여 및 여성의 사회진출」로 명명하였다(표 2). 이 척도의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 성역할태도로 평가되었다.

2) 아동이 인지한 아버지의 양육참여행동

아버지의 양육참여행동은 강란혜(1990)의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참여도의 척도를 참고로 했다. 각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참여행동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여기서 아버지의 질적 양육행동(애정적 양육행동)은 아버지가 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의 질로 따뜻함과 애정을 의미하며 아버지의 양적 양육행동(참여도)은 아버지

가 아동에 대한 물리적, 신체적 접촉의 양적 정도를 의미한다.

3. 분석방법

이상에서 얻어진 자료에 대한 통계처리는 SAS/PC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도구의 요인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Cronbach's α 값과 모든 변인들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s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아버지의 양육참여행동을 예측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 아버지의 양육참여행동에 대한 요인분석

(한일: N=455)

문항 번호	변 인	요인	
		I	II
I 질적양육행동(애정적 양육행동 $\alpha=.87$)			
11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아버지는 나를 달래 주신다	.76	.17
5	아버지는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따뜻하게 위로해 주신다	.72	.15
2	아버지는 나를 안아주거나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신다	.71	.01
4	아버지는 나의 생각이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71	.23
1	아버지는 나에게 칭찬을 잘 해 주신다	.70	.14
3	아버지는 나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신다	.65	.30
6	아버지는 새로운 일에 대해 나와 함께 이야기 해 주신다	.52	.42
9	아버지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나와 함께 이야기 하신다	.46	.42
7	내가 모르는 점을 아버지께 물어보면 알 때까지 설명해 주신다	.43	.36
II 양적양육행동(참여도 $\alpha=.76$)			
14	아버지는 나와 놀아주는 상대(게임 등에서)가 되어 줍니다	.13	.70
10	아버지는 나의 공부를 돌보아 주신다	.20	.60
13	아버지는 시간이 있으면 나를 데리고 외출합니다(박물관, 공원등)	.21	.54
17	학교에서 부모를 위한 수업 참여가 있을 때 아버지는 참석하신다	.03	.52
16	아버지는 매일 나와 함께 저녁을 드십니다	.06	.33
기여율		4.07	3.00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아버지의 배경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 행동

아버지의 양육참여행동척도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455명을 Varimax회전방식을 이용하여 주성분 분석에 의한 요인분석 결과 아버지의 질적참여행동(애정적 양육행동)과 아버지의 양적참여행동(참여도)의 2요인 14항목이 추출되었다(표 2).

다음으로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참여도를 한일 비교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일본보다 한국이 높았으며 참여도는 한국보다 일본이 높았다. 이것을 각 나라에서의 아동의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애정적 양육행동 및 참여도는 남아보다 여아에게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과거 아들중심이었던 한국의 아버지들이 자녀에게 갖는 가치관 또는 전반적인 사고가 상당히 현대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일본도 남아보다 여아에 높았으나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양국 모두의 아버지는 남아

보다 여아에게 참여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Ishii-Kunts(1994)의 연구와 일치한다.

아버지의 관련변인이 양육행동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변인들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한국의 경우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아버지의 학력($\gamma=.17, P<.01$), 어머니의 직업유무($\gamma=.13, P<.05$), 아동의 성별 ($\gamma=.12, P<.05$)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즉 아버지가 학력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직업을 갖고 있지않은 경우, 여아에게 아버지는 애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는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gamma=.20, P<.01$), 평일에 아동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수록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gamma=.17, P<.05$). 반면 아버지의 참여도는 한국과 일본 모두 평일에 아동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수록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gamma=.17, P<.05$, 일본; $\gamma=.36, P<.001$). 즉 일본은 평일에 아동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행동 및 참여도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아버지의 양육참여행동에 대한 한일비교-특점평균(표준편차)

	한국		일본	P
제1요인 질적양육행동(애정적 양육행동)	3.06 (0.62)	>	2.76 (0.67)	***
제2요인 양적양육행동(참여도)	2.62 (0.60)	<	2.77 (0.56)	***

*** $P<.001$

<표 4> 아동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 행동

	한국 (남;N=124, 여아;N=116)				일본 (남;N=105, 여아;N=109)			
	애정적 양육행동	t	참여도	t	애정적 양육행동	t	참여도	t
남아	2.99(0.59)	-1.90*	2.57(0.62)	-1.95*	2.72(0.65)	-1.02	2.71(0.60)	-0.97
여아	3.14(0.57)		2.67(0.51)		2.81(0.67)		2.82(0.51)	

* $P<.05$

〈표 5〉 아버지의 관련변인과 아동양육 행동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한 국	1. 아버지의 질적 양육행동										
	2. 아버지의 양적 양육행동	.43**									
	3. 아버지의 학력	.17**	.03	.10	.15						
	4. 아버지의 직업	.04	.10	.12	.01	.31***					
	5. 자녀수	-.04	.02	-.02	.05	.07	-.01				
	6. 어머니의 직업유무	.13*	.05	-.19*	.09	.02	.16*	.03			
	7. 아동의 성별	.13*	.08	-.13*	-.15*	.02	.19**	.02	.04		
	8. 평일에 아동과 지내는 시간	-.07	.17*	-.16*	.09	-.32***	-.09	.02*	.05	-.13*	
일 본	1. 아버지의 질적 양육행동										
	2. 아버지의 양적 양육행동	.47***									
	3. 아버지의 학력	.20**	.03	-.05	.12						
	4. 아버지의 직업	.05	.08	-.07	-.05	.25***					
	5. 자녀수	.03	-.01	.02	-.02	-.09	.02				
	6. 어머니의 직업유무	.04	-.04	.16*	.07	.02	.03	-.05			
	7. 아동의 성별	.06	.09	.05	-.06	-.04	.07	.02	-.01	.07*	
	8. 평일에 아동과 지내는 시간	.17*	.36***	-.14*	-.09	-.32***	-.05	.08	.08		

$P < .05$ ** $P < .01$ *** $P < .001$

주) 아버지의 성역할태도 1 : 성별분업의식

아버지의 성역할태도 2 : 남성의 양육참여 및 여성의 사회진출

2. 아버지의 성역할 태도와 아버지의 양육참여행동

요인분석에 의한 아버지의 「성역할태도적도」 항목에 대한 타당성의 검토; 한국과 일본의 아버지 455명의 응답을 Varimax 회전방식에 의한 요인분석을 행했다. 그 결과 제1요인을 「성별역할 분업의식」 제2요인을 「남성의 양육 및 여성의 사회진출」로 명명하였다(표 6). 다음으로 이러한 아버지 성역할태도를 각 요인별로 한일 비교를 실시하였다(그림 1). 성별분업의식과 남성의 양육 및 여성의 사회진출 모두 일본 보다 한국이 높은 득점을 나타냈다. 이것은 일본 보다 한국의 아버지가 전통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3. 아버지의 양육참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인

아버지의 관련변인 및 성역할 태도가 양육참여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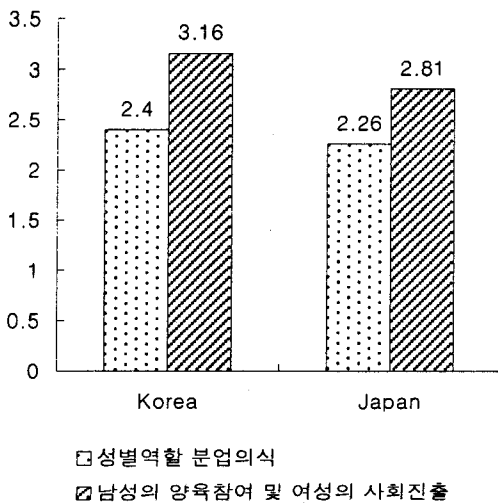
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아버지의 관련변인, 성별역할분업의식(제1요인), 남성의 양육 및 여성의 사회진출(제2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설명력이 높고 유의도가 높은 변수순으로 투입되다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변수들만 남게 되면 분석이 중단되는 단계별 투입방식(stepwise)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의 경우 성별역할분업의식(제1요인), 아버지의 학력과 어머니의 직업유무만이 애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 변수는 애정적 양육행동의 16%를 설명($P < .01$)하고 있는데 특히 성별역할분업의식(제1요인)이 그중 13%를 설명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비전통적 성역할태도를 가진 아버지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애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제2요인은 분석에서 제외되어 애정적 양육행동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는 평일에 아동과 함께 지

〈표 6〉 성역할태도 척도의 요인분석(한일)

문항 번호	변 인	요인	
		I	II
I 성별역할분업식($\alpha=.70$)			
11	직업을 갖고 있어도 가사 및 육아는 여자의 역할이고 책임이다.	.70	-.19
1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양육에 책임을 갖는 것이 좋다.	.64	.26
7	남자의 성공은 경제력에 달려있다.	.50	.19
13	남자가 가사를 하는 것은 남자답지 못하다.	.47	-.10
9	자녀가 3살이 될때까지는 아내는 애키우는데 전념해야 한다.	.47	.33
5	남자도 가사 및 양육을 해야만 한다. ▽	.45	-.45
4	남자 아이는 뭐니뭐니해도 대학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다.	.44	.32
2	결혼을 한 여자도 경제적인 자립을 해야한다. ▽	.37	.12
3	남편이 일 때문에 자녀를 돌볼 겨를이 없는 것은 어쩔 수 가 없다.	.34	-.17
II 남성의 양육및 여성의 사회진출($\alpha=.61$)			
6	남자아이의 교육에는 아버지가 중요하다.	.16	.54
12	아버지 혼자서도 아이를 훌륭하게 키울 수 있다. ▽	.05	.49
10	직업을 갖은 엄마도 직업을 안가진 엄마와 같은 정도의 역할을 아이에게 할 수 있다. ▽	.01	.35
8	각자의 직장으로 인해서 필요상 부부가 따로 지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	.03	.34
기여율		2.26	1.72

주) ▽ : 역전항목

〈그림 1〉 아버지의 성역할태도에 관한 한일비교



내는 시간이 길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비전통적성역할태도를 가진 아버지 일수록 애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과 일본 모두 아동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아버지 참여도에 강력한 변수임이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는 평일 아동과 접촉시간이 아버지의 참여도의 12%, 일본의 경우는 19%를 설명하는 변수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의 아버지가 아동과 평일에 함께 지내는 시간을 비교한 결과는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접촉시간의 양을 비교해보면 한국이 평일에 2시간 이상 지내는 아버지가 일본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아동과 함께 지내고 있지 않다고한 아버지가 일본의 경우 10%를 차지하고 있었다. 일본에서 아버지와 아동과의 접촉시간이 적은 경향은 국제비교조사(1995)에서도 나타난것과 일치한다. 이것은 노동시간과 관계하고 있는 것인지 후속

〈표 7〉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관련변인의 단계적 중회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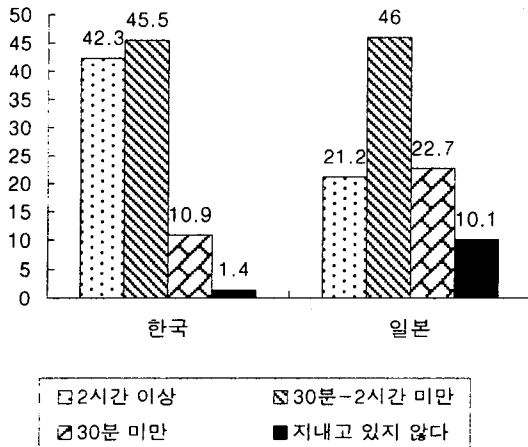
한 국				일 본			
독립변수	B	β	Partial R ₂	독립변수	B	β	Partial R ₂
성역할분업의식	.09	-.15*	.13	평일 아동과 접촉시간	.06	.18***	.16
아버지의 학력	.04	.10**	.02	아버지의 학력	.05	.17**	.08
어머니의 직업유무	.09	.20*	.01	성역할 분업의식	.11	-.30	.02
R ₂	.16			R ₂	.26		
F	4.34**			F	4.21**		

주) 어머니의 직업유무는 가변인화(Dummy)한 것으로 비취업 주부인 경우이다.

〈표 8〉 아버지의 참여도에 대한 관련변인의 단계적 중회귀분석

한 국				일 본			
독립변수	B	β	Partial R ₂	독립변수	B	β	Partial R ₂
평일 아동과 접촉시간	.06	.15*	.12	평일 아동과 접촉시간	.04	.08***	.19
아버지의 학력	.04	.06**	.03	아버지의 학력	.08	.14**	.02
R ₂	.15			R ₂	.21		
F	6.73*			F	11.12**		

〈그림 2〉 아버지와 아동과의 평일 접촉시간



연구를 통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V. 요약 및 결론

사회의 변화에 따른 어머니의 취업과 사회참여 그리고 아버지 자신의 인식의 변화로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는 적극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는 추세이며 이에 대한 연구들도 활발해 지고 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아동(한국; 4-5학년, 일본; 5-6학년)과 그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여 아버지의 관련변인 및 아버지가 지각한 성역할 태도와 아동이 인지한 아버지의 양육참여행동간에 한국과 일본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아버지의 양육참여행동은 한일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아버지가 일본의 아버지보다 애정적 양육행동을 더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아동은 아버지의 양육행동에서 따뜻함을 느끼는 경향이 강하다는 연구결과(根ヶ山, 1996)에서 시사하는 것처럼 한국의 아버

지는 엄격한 양육행동속에 자식에 대한 애정의 표현을 하는 것에 비해 일본 아버지는 침밀감이나 애정의 표현이 적고 가족안에서 정서적인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존재(大野, 1995)인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한편 한국의 아버지가 평일에 아동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일본 아버지보다 많지만 일본 아버지가 양적 참여도를 더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아버지와 아동」에관한 미국, 독일과의 국제비교조사(총무청, 1987)에 의하면 일본의 아버지는 아동과의 접촉시간은 미국, 독일의 아버지에 비해 짧지만, 아동과 동등한 입장이되어 적극적으로 놀아주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아버지는 아동과 함께 지내는 시간은 많지만 '수업참관을 한다' '나와 놀아주는 상대가 되어준다' 등의 양육참여도를 어머니의 역할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아동과의 접촉시간이 길어도 실제 수행의 정도를 알기 위해서는 어머니와의 비교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아버지의 관련요인들 모두가 아버지의 양육참여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경우를 각각 살펴보았을 때, 성역할태도중 제1요인(성별분업의식)이 한국과 일본 모두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전통적 성역할 의식을 가진 아버지에게 비해 비전통적 성역할 가치관을 가진 아버지가 아동에게 애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한다(Deutsh, Lussier & Servis, 1993; 數井과 그의 동료들, 1996)는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한편 한국과 일본 아버지 모두 아동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에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양육참여도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아버지의 관련변인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 모두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행동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높은 사람은 아동양육에 많은 참여를 한다라는 연구결과(Palkovitz, 1984; Williams, Radin & Coggins, 1996)와 일치하고 있다. 아버지의 학력 이외에 한국의 아버지는 어머

니가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애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8년 전 동일한 연령의 아동과 아버지를 대상으로 양육행동을 조사한 강관혜(1990)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어머니가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일본의 33%에 비해 한국은 70%이상인 점에서 해석을 일반화하는데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부부의 성역할태도에관해 한일비교결과 한국의 아버지가 일본의 아버지보다 전통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강관혜·永久, 1997; Sagara, J & Kang, R.H, 1998). 물론 일본도 전통주의적 성역할관이 강한 사회이다. 말하자면 남성은 일에 전념하고 여성은 사회와의 관계보다는 가정에서 가사나 양육행동에 전념하는 것이 여성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小野·柏木, 1997)있지만 한국과 비교시 한국의 아버지가 보다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직도 한국은 유교적 사상이 존재함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일비교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 태도만 다루었지만 후속연구는 아버지의 양육참여행동에 아버지의 심리적 변인 즉 아버지가 아동양육에 대해 어떤 신념을 갖고 있으며 하루의 반 이상을 직장에서 보내는 직업에 대한 직업관과 아동양육참여와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포함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버지의 연령에 따라 부모로서의 변화 및 성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의 역할도 생애발달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끝으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연구에 비해 아버지의 연구가 적은 한일 양국의 아버지가 아동에 대한 양육행동이 각각의 문화 안에서 어떻게 다른가를 검토함으로써 한일비교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참 고 문 헌】

- 강관혜(1990).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성역할 특성간의 관계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희숙(1995). 두자녀 아버지의 심리적 경험과 역할

- 수행.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숙(1995). 부인의 취업유무와 직종에 따른 부부의 가사 및 자녀양육수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경순(199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선자(1992). 아버지의 역할지각 및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ruch.G., & Barnett, R.(1986). Father's participation in Family work and Children's Sex Role Attitudes. *Child Development* 57, 1211-1223.
- Baruch.G., & Barnett, R.(1987). Determinants of Father's Participation in Family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29-40.
- Coverman, S. & Sheley, J.F. (1986). Change in men's housework and child-time, 1965-1975.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413-422.
- Crockenberg, S.B. (1988). Social support and parenting. In H.E. Fitzgerald, B.M. Lester, & M.E. Yogman (Eds.), *Theory and Research in Behavioral Pediatrics*. Vol. 4. New York: Preum, 141-174.
- Crouter, A.C., Perry-Jenkins, M., Huston, T.L. & McHale, S.M. (1987). Processes underlying father involvement in dual-earner and single-earner families. *Developmental Psychology* 23, 431-440.
- Levant, R.F., Slatery, S.C. & Loiselle, J.E. (1987). Fathers' involvement in housework and child care with school-age daughters. *Family relations: Journal of Applied & Child Studies* 36, 152-157.
- Deutsch, F.M., Lussier, J.B., & Servis, L.J. (1993). Husbands at home: Predictors of paternal participation in childcare and housework.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1154-1166.
- Dunn, J. (1993). *Young Children's Close Relationships* Newbury, CA: Sage.
- Easterbrooks, M. & Goldberg, A. (1984). Toddler Development in the Family: Impact of Father Involvement and parenting characteristics. *Child Development* 55, 740-752.
- Ishii-Kuntz, M. (1994). Paternal involvement and perception toward fathers' role: A comparison betwee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Family Issues* 15(1), 30-48.
- Lamb, M.E. (1986). *The Father's Role: Applied Perspectives*. New York: Wiley.
- Lamb, M.E. (1987). *The Father's Role: Cross-Cultural perspective*. Hillsdale, NJ: Erlbaum.
- Levy-Shiff, R., & Israelashvili, R. (1988). Antecedents of fathering: Some further explor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 434-440.
- MacKonald, K., & Parke, R.D. (1984). Bridging the gap: Parent-child play interaction and peer interactive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5, 1265-1277.
- McHale, S.M., & Huston, T.L. (1984). Men & Women as parents: Sex Role Orientations, Employment & Parental Roles with Infants. *Child Development* 55, 1349-1361.
- Palkovitz, R. (1984). Parental Attitudes and Fathers, Interactions with their 5 month-old Infa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0(6), 1054-1060.
- Park, R.D. (1995). *The father: Handbook of Parenting* vol.3 Lawrence Erlbaum Associates, New Jersey.
- Parke, R.D., & Tinsley, B.J. (1987). Family interaction in infancy. In J.D. Osofsky(Ed.),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579-641.
- Pleck, J.H. (1983). Husbands paid work and family roles: Current research issues. In H. Lopota & J.H. Pleck(Eds.). *Research in the interweave of social roles: Vol. 3. Families and Jobs*.

- Greenwich, CT: JAI.
- Russell, G. (1982). Shared caregiving families: An Australian study. In M.E. Lamb (Ed.), *Non-traditional Families: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Hillsdale, NJ: Erlbaum, 139-172.
- Russell, G., & Russell, A. (1987). Mother-child and father-child relationships in middl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58, 1573-1585.
- Sagara, Junko & Kang, Ran-Hye. (1998). Parents' effect on children's gender-role attitudes' A comparison between Japan and Korea. *Psychology*, vol. 41. 3 (인쇄중)
- 大野祥子・柏木恵子(1997)、父親：児童心理学の進歩、金子書房。
- 加藤邦子・中野由美子・土谷みち子・小野寺敦子・数井みゆき(1996)、父親の養育行動の柔軟性・硬さと育児参加 牧野カツコ他編子どもの発達と父親の役割(pp.135-146)、ミネルヴァ書房
- 小寺敦子・柏木恵子(1997)、親意識の形成課程に関する縦断研究、発達研究、Vol. 12. 59-78.
- 姜蘭恵(1997)、父親の養育行動と子どもの性役割特性との日韓比較研究、発達研究、Vol. 12. 79-87.
- 姜蘭恵・永久久子(1997)、家族の個人化-妻を中心として-(2)-日韓比較研究-、日本発達心理学会第8回大会発表論文集
- 牧野カツコ(1982)、乳幼児をもつ母親の生活と〈育児不安〉家庭教育研究所紀要、3, 34-56.
- 柏木恵子・若松(1994)、「親となる」ことによる人格発達：生涯発達の視点から親を検討する試み、発達心理学研究、5(1), 72-83.
- 小宮山要(1992.)、幼児の養育における父親の役割に関する研究、桜美林短大紀要 28. 55-67.
- 木田淳子(1980)、共働き家庭における育児行動 滋賀大学教育学部紀要、30, 116-135.
- 牧野カツコ・中野由美子・柏木恵子(1996)、子どもの発達と父親の役割、ミネルヴァ書房
- 木田淳子・大谷直美(1992a)、父親の子育て参与に関する家族関係の考察(第1報)職業的要因および家族静対、日本家庭学会誌、43(8), 721-733.
- 新谷美由子・村松幹子・牧野暢男(1993)、親の変化とその規定因に関する一研究、家庭教育研究所紀要、15, 129-140.
- 土谷みち子(1992)、父親の生活実態と父子かわり、家庭教育研究所紀要 14, 108-116.
- 佐々木保行(1996)、父親の発達研究と家族システム-生涯発達心理学アプローチ-、教育心理学研究、Vol. 35, 137-146.
- 福丸由佳(1997)、乳幼児期の子どもの持つ親における仕事観、子ども観、お茶の水女子大学 大学院、修士論文.
- 鈴木(1994)、脱男性役割態度スケール(SARLM)の作成、日本心理学研究、164, 451-457、発達研究、Vol. 12.
- 総務庁青少年対策本部(編)(1987)、日本の父親と子供：アメリカ・西ドイツとの比較、大蔵省印刷局
- 総務庁青少年対策本部(編)(1987)、子供と家族に関する国際比較調査、大蔵省印刷局
- 日本女子社会教育会(1995)、家庭教育に関する国際比較調査報告書：子どもと家庭生活についての調査(財)日本女子社会教育会.
- 中野美由紀(1992). 3歳幼児の発達と父子関係、家庭教育研究所紀要、14, 124-129.